

2021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주간행사
"Plan an Jeonju upcycle 2021!"

Plan an upcycle!
2021 라운드테이블

"Plan an Jeonju upcycle 2021!" 라운드테이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문을 열면서 마련한 라운드테이블은 작은 포럼 형식의 토론회로 준비했습니다. 다시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새활용센터의 역할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새활용센터는 열린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거쳐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아 내고자 합니다. 전주만의 새활용센터의 비전은 이런 관심과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원순환에 대한 실험과 도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새활용센터는 새활용교육서비스, 관련 전문 인프라 양성, 새활용기업양성, 지속가능한 새활용산업기반구축, 새활용센터 공간 활성화라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은 운영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연대가 우리를 지탱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라운드테이블에 초대된 분들의 이야기는 일하는 영역과 이슈가 다양합니다. 새활용에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의 토론에 15분의 토론자와 2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구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는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수거의 문제, 모든 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재활용산업에서의 혁신과 새활용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과 고민이 나열되어있습니다. 녹취와 함께 기록된 글은 구어체 그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전달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공유하길 바라는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파일을 첨부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새활용, 모두가 공유하고 일상에 함께 하는 새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_ Plan an Jeonju upcycle 2021! 라운드테이블
- 일 정_ 6월 1일(화)/2일(수)/4일(금) 16:00~18:00
- 장 소_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4층 모임터
- 참여자_ 주제별 퍼실레이터 3명 각 라운드별 토론자 5명, 기록1명, 참관 2명
- Schedule

| 일정 | 내 용 | 진행자 |
|--------------------------|--|----------------------------|
| 6월1일 화요일 오후 4:00-6:00 | 1. "전주에서 사회적가치로 먹고살기" 1) 전주에 머물기로 한 청년들 2)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의 역할은 ◆ 토론자 □ 설지희 : 썬지연구소 문화유산 큐레이터 □ 고현지 : 팜앤코 화장품 브랜드 대표 □ 김형준 : 토크프로젝트 이사장, 영화 프로듀서 □ 김주미 :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중 □ 박하숨 : 주, 커넥트 대표 | 퍼실레이터 장한결 (소우주 공동대표) |
| 6월2일 수요일 오후 4:00-6:00 | 2. 전주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정책 1) 쓰레기와 RE 2) 진짜 필요해? - 없어도 괜찮아! 3) what & how ◆ 토론자 □ 유지은 : 전북생명의 숲 사무국장 □ 모아름드리 : 프리데코 회장 | 퍼실레이터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장)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 아 : 모악산의아침/제로볼모지 ▫ 김지영 : 잇잇대표 ▫ 박이슬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 |
| <p>6월4일 금요일 오후 4:00-6:00</p> | <p>3. 전주 새활용 소재개발 산업 가능성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주시 자원순환의 정책적 제언 2) 업사이클의 지역 소재개발과 산업의 가능성 ◆ 토론자 ▫ 김세훈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 장우연 :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강재원 : 사람과 환경 대표 ▫ 고은경 : Ecogreen환경교육 연구소 대표 ▫ 문지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 <p style="text-align: center;">퍼실레이터 송상민 (전주시새활용센터장)</p> |

Plan an upcycle! **2021라운드테이블**

두 번째 토론회 전주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6:00~18:00
- 장 소: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모임터
- 진행자: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장)
- 토론자: 유지은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모아 (모악산의 아침/불모지장)
김지영 (잇잇대표)
박이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본 토론자료는 녹취 후 기록한 자료입니다. 각 토론별 발제자료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주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녹취기록: 전북대학교고고문화인류학과 대학원생 김미라
참석: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정수경 팀장
전주시 자원순환과 임미현 팀장



최우순// 저한테 라운드테이블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는데 주제가 쓰레기문제였어요. 물론 기후 위기 범위 안에 자원순환이라는 분야도 있고, 에너지도 있지만 사실 이쪽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도 저희가 앞으로 같이 협업 등 함께 잘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발제문을 간략하게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 발제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준비하면서 보니 공유하려는 내용보다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고 실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자료나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원칙 안에서 시민들과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있는 통계자료를 봤더니 하루에 1kg가량 배출하고 있었고, 전주의 데이터를 봤더니 0.9kg 정도의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일상에서 배출하는 것들이었고요. 이게 무게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아요. 1년이면 365kg을 배출한다는 뜻이니까요. 작년에 제가 일하는 전주에너지센터에

서 기후위기대응리빙랩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성을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가 아주 많고 종량제 방식의 배출이 50%라고 해요. 종량제라고 하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비율이 그 정도로 되는 거고 재활용이 24%, 버린 음식물이 24.7%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활용률이 60% 정도이고요. 국가 전체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넘어오면 플라스틱 안에서의 재활용률이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가 어떤 형상인지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가 내용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것을 다 생활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¹⁾이나 물, 환경, 소음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시설이나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화살표가 있죠. 한쪽은 누가 봐도 순환형으로 보이죠 (PPT 2p) **자원이 투입되면 쓰레기 배출로 이어지고, 쓰레기 배출이 다시 자원으로 투입되는 이런 순환형, 순환자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이 투입되면 쓰레기로 배출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선형구조²⁾ 가질 것인가. 누구나 투입되면 재사용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그것이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순환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한 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포스트잇. 사실 이것도 쓰레기인데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잇에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최우순//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큰 틀에서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쓰신 이슬 선생님부터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붙여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박이슬// 일단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종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심을 남겼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가 왔는데 안에 뽁뽁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깨지는 물건이 아닌데 뽁뽁이가 넣어있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벗을 거예요. 일회용 마스크. 날마다 버릴 때마다 괴로워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발생시키는 것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대변하고 나면 모래를 치워야 하는데, 봉투를 쓰게 돼 있어요.

최우순// 뽁뽁이 비닐이죠. 분리배출이 가능하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따로, 고양이 응가 봉투는 일반쓰레기. 종이도 분리배출이 가능하지요. 일회용 마스크도 일반쓰레기입니다. 다음 모아름드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모아름드리// 쓰레기별로 안 하고 삶의 방식별로 작성했어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밥을 많이 남기고 냉장고 관리 안 해서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또 간식거리를 많이 먹어서 개별포장 때문에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요. 저도 사무실에서 종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이면지랑 재생종이를 쓰긴 해도 그런 데도 오타 하나 나오면 뽑고 다시 뽑고 이러니까 종이 쓰레기, 택배, 홍보물 등 이런 종이 쓰레기도 엄청 많아요. 저는 물티슈를 거의 안 쓰긴 하는데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티슈가 미세플라스틱이니까 안 쓰고 행주로 훑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걸 물티슈로 다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걸 어머니 왜 물티슈 쓰세요, 이럴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물티슈랑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지영// 저는 오늘, 어제 나왔던 것들 생각했고요. 오늘 아침에 내린 커피의 종이필터인 일반 쓰레기, 일하다 먹은 과자로 과자 봉투가 나왔고 입주하면서 구입한 물건이 택배로 왔는데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엄청 돌돌 말아서

1)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5호).

2) 선형구조: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모양인 자료구조.

왔더라고요. 테이프는 일반, 택배 상자는 종이. 에어캡 포장 비닐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쓴 휴지랑 어제 물건 정리하면서 안 써지는 볼펜 버렸어요. 버리면서 보니까 펜이 모두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이름 태그를 바꿔줬는데 이름택 외에도 사료 비닐이랑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이 나왔어요.

최우순// 일반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아// 저는 다 쓴 이면지요. 이면지 앞뒤로 다 써서 나온 것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는 화분 용기요. 요즘 모종 엄청 많이 심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우순// 그건 일반 쓰레기가 맞을 것 같아요.

모 아// 그리고 맥주병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공병 반환하죠. 그리고 저도 고양이가 있어서 앵두의 츄르 간식 봉지랑 화장실 모래요.

최우순// 화장실 모래는 일반쓰레기.

박이슬// 모래는 매립이에요. 응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 모래가 몽땅 나오죠. 그거 매립으로 가야 해요.

모 아// 먹는 거로는 두유팩이랑 토마토를 얼마 전에 샀는데 밑에 스티로폼 깔린 거요. 그리고 오늘 김밥을 하나 먹는데 용기 대신에 은박지 아니고 종이 접시오.

최우순// 스티로폼은 분리배출이 가능하죠.

정수경//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 아// 저도 일회용 마스크랑 지금 쓰는 포스트잇이요. 또 주유한 영수증이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세차비 2,000원 할인되는 거라.

최우순// 영수증은 종이가 아니라 일반쓰레기죠.

유지은// 저는 오늘 점심으로 먹은 음식물 쓰레기, 간식으로 먹은 사과주스 종이팩, 그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던 빨대 포장하는 비닐. 그리고 커피믹스 비닐, 빨대 플라스틱. 그다음에 마스크. 화장용 솜이랑 화장지요. 저도 영수증과 택배 상자. 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최우순// 지금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가 많거든요. 음식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류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종이가 많이 나왔고. 플라스틱이 조금 나왔네요. 그리고 병, 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쓰레기 종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쓰레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쓰레기 종류. 생활 쓰레기에서 화장지는 일반쓰레기이고 재활용품은 이렇게 나왔죠. 자주 버리지는 않은 것들이요.

유지은// 유리요.

최우순// 그건 분리배출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를 총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 가전제품, 책상, 침대 이런 건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고해서 딱지를 떼서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유해 쓰레기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건전지. 약은 의약품으로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박이슬//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쓰레기에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왼쪽 최우순(전주에너지센터장) 모아 (모약산의 아침/제로볼모지)

최우순//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정된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보통 약국인데 약국들이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하수구에 물약 같은 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해요. 다시 바다나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몽땅 쌓아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려고 있긴 한데, 사실 시민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유해 쓰레기 중에서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것들. 요즘에 건전지도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보통 길가 쓰레기처리장 옆에 보면 의료수거함 옆에 이렇게 꽂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버려보긴 했는데 수거는 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LED 등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해 쓰레기로 아직 제대로 분류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환경부가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유지은// 힘들게 부탄가스나 모기약 스프레이 구멍 뚫으라고 하는 게 무섭거든요. 꼭 구멍 뚫어야 해요

최우순// 구멍을 뚫어서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구멍만 뚫는 거는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이상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무섭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분리해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리지는 않지만 대형 폐기물이 있고 유해 쓰레기가 있죠. 사실 저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건전지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장난감이나 소리 나는 책이나 이런 것에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젓갈 통 큰 거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유해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쓰레기가 총 다섯 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괜찮아 재활용이야.’ 재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잘 돼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재활용으로만 치부시켜 버려야 될까? 이런 고민의 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 얘기했는데 1일 생활 쓰레기양은 전국에서 하루에 약 6만 톤. 그중에서 재활용률이 60% 정도고 매립과 소각 비율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전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라고 해서 삼천동에 버린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거기에 같이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재활용 선별시설은 대형 폐기물이 아닌 저희가 분리 배출하는 유리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매립장도 있고 소각센터도 있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매립을 할 건지, 소각을 할 건지는 지자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시설이 없는 경우는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주처럼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 있는 곳들은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한 번 가봤는데요. 진짜 음식물 쓰레기에 축구공 넣는 사람도 있고, 냄비 넣는 사람도 있고, 비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나 소각자원지원센터는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한 번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름드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최우순//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형 폐기물은 소각자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 기피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등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묻거나 소각하는 것이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재활용 표시 있잖아요. 저 삼각형, 저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³⁾라고 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을 할 수 있는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도입이 됐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제품은 생산자가 처리하는 비용까지 낸 거죠. 물론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재활용이 어려운지 좋은지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화장품어택⁴⁾이나 이런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도 씻어서, 말려서, 배출. 이렇게 되면 용이성 등급에서 우수를 받는다고해요. 이런 제도들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정책이 아닌가 고민의 지점도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인식을 우리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회용 포장재 강제 보증금제도⁵⁾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빈 병 갖다주면 보통 술병, 맥주병하고 소주병에만 지금 맥주병은 130원, 소주병은 100원 해서 보증금 제도가 있죠.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은 보증금을 100원 받는 제도가 실행 예정이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생수병을 사면 300원을 더 낸다고 합니다. 1,300원을 내서 생수병을 구매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고 해요.

만드는 기업이나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의 세 분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회수율이 높겠죠. 비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단점은 실제 수거하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비용 등이 많이 들어서 지역에 맞게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이 먼저일까? 재사용이 먼저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한 번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잇에 쓰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재활용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얘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약어 EPR)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4) 화장품어택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면서도 2021년 3월부터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활용 등급제’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표시를 면제받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펼쳐진 시민 환경 운동.

5) 일회용 포장재 강제 보증금 제도 : 독일에서 일회용 페트병, 유리병, 캔에 0.25유로(한화 약 300원)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하도록 강제함. 2003년부터 시행.

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지영// 저는 우리가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낮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사용하면 컵 같은 거는 바로 씻어서 분리수거 하는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관심을 두고 계속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폐지를 재활용하는 상품을 개발 중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도 있어야 하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업사이클 되면서 유해 물질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용한 것을 다시 재활용해도 좋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져 있지 않은 이상 아무리 분리해서 수거해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도 좋지만 앞으로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으면 해요. 봉투도... 종이봉투도 열 번을 써보자, 생각하면서요. 예전에는 분리배출 했는데 지금은 일회용품도 10번 이상씩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재사용과 재사용 인식이 더 생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순// 재활용 이전에 재사용이 조금 더 문화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신 거죠.

모아름드리//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재사용하는 데 없어 보인다는 것이 만연해요.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에 대한 물결이 일면서 재활용공예가 업체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리싸이클링을 하든 업사이클링 하든 새것 같지 않거든요. 기업들은 쓰레기 같은 거 말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조금 더 번듯해 보이는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당근 앱을 지지하는 견해인데 반대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남이 쓰던 거에 대한 뭔가 미신적인 것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하나.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방증이겠죠.

최우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박이슬// 일단은 재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재활용해야지 하고 씻어서 말려서 냐지만, 결국에는 재활용해서 낸 것 중에서도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인식의 전환이나 아니면 교육으로 알게 해줘야 결국에는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분리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배출을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리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들에 쓰레기장에 가면 다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분리배출 하러 가면, 정말 꺼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캔 같은 거 버렸어도 거기 안에 참치, 기름 끼있기도 하고요. 이건 분명히 쓰레기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버리면서 만족하신 거죠. ‘나 재활용 잘했어’ 라고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 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우리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업 차원에서라든지, 동원참치면 캔은 어떻게 씻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라사이클하고 빙그레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자금을 제공했거든요. 분바스틱⁶⁾이라고 빙그레 우유 모양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걸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걸 투자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고리 끊어서 배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칼이라든지 가위로 집에서 끊으려고 하니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버리게 되는 거 같아요. 기업에서 바꿔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센터에서 만들어본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만들어보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우순// 이슬선생님이 해 주신 얘기는 재사용은 당연한 거지만 일단 재활용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나 도구나

6) 분바스틱 : 분리배출이 쉬워지는 바나나맛우유 스틱의 약자로 테라사이클과 빙그레가 플라스틱 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친환경 캠페인.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재활용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모아 선생님은요?

모 아// 저는 사람들에게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재사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불모지장에서도 의류나 소품들이 재활용된 애들이 아니라 재사용을 하려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재활용이 잘 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에코 마케팅이 많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재활용이 괜찮다고 말을 했다가 모르고 재활용 들어가는 제품이라 괜찮아 그러고 쓸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겁이 나서 재사용으로 있는 거 쓰시라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근 좋아하는 데 무조건 활용을 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미니멀라이프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폐기물을 줄이려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보다는 환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나에게 많은 물건이 있었다고 정리하는 시간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재사용 인식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코마케팅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재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가 필요하되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생분해 용기도 사실은 위험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해주어야 해요. 그런데도 사용하는 카페들은 지지하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페들이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작게라도 시민들이 인식을 얻고, 공부하다 보면 생분해가 좋은 건 아니었네,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데까지 이루지 않을까요. 저는 재사용을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최우순// 저도 요즘에 기업들이 마케팅도 분해 재질로 했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소비의 선택에 가치를 더 둘 것이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우리가 스스로 한 번 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은//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보다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구조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환경 의존적인 사람이라 장을 보면 재활용되면 어쨌든 쓰레기처럼 분리수거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⁹⁾ 매장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20년 전, 30년 전에 커피 테이크 아웃이 없었잖아요. 쓰레기 자체가 재활용되든, 재사용이 되든 쓰레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우순// 맞습니다. 그것에 포인트가 무엇일까? 구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요즘에 쓰레기 제로, 제로웨이스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데요.

그럼 쓰레기 제로의 의미는 뭘까.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제로는 뭘까? 기업들의 계획된 진부화¹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면서 책을 통해 알게됐어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휴대폰 2년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실제로 물건 내구성을 떨어뜨려서 계속 소비를 촉진 시키는 것을 계획된 진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대포장 같은 경우는 내 상품이 더 예쁜 상품이어서 소비자들을 현혹해야 많이 팔리니까 더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행동하잖아요. 화장품 어택도 하고요. 스펀 플라스틱 뚜껑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쓸데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구매했을까? 이전까지는 사실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활동들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쓰레기도 사실 우리가 소비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7) 미니멀 라이프 : minimal life.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

8) 에코마케팅 : eco marketing. 친환경과 환경 보전을 주제로 하는 마케팅 방법.

9) 제로웨이스트 : 제로 웨이스트: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운동

10) 진부화 : 공장, 기계,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수명의 단축으로서 발명, 생산공정의 개량,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같은 기술 진보, 또는 기호의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설재의 내용연한이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사는 거 자체가 쓰레기를 소비하는 일부의 활동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쓰레기 제로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작자가 생각하는 쓰레기 제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씩 얘기해볼까요?

모 아// 쓰레기 제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숙소에 환경을 접목하려고 하니까 처음으로 용어를 생각했어요. 환경 숙소, 환경친화숙소, 자연 숙소 이렇게요. 그런 와중에 작년에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 끌리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듣자마자, 제로? 실제로 하나의 사회운동 용어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런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숙소라는 공간은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제로의 의미를 많이 재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영어로 구글 서치도 하고 제로웨이스트 숙소로 명칭을 하나 만든 거죠. 이 과정에서도 혼자 한 건 아니고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고, 환경에 대해서 알고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았어요. 전국에 아홉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고민하면서 제로웨이스트라는 숙소 이름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작자가 처음이니까 재정의하기를 어려워하다가 제가 낸 결론은 그 제로라는 의미가 해외에서도 그렇고 아예 영어로, 숫자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 수렴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재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제로의 의미는 그냥 의미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영어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로웨이스트 숙소를 설명할 때는 이런 사회운동이 있는데 관련 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우순// 일단 가치 지향성이라고 정리를 하면 삶을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될 거 같습니다.

모 아// 네. 제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도 있겠죠. 쓰레기 저장하는 곳이 몇 년 동안 나온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왼쪽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유지은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최우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아름드리// 제로웨이스트라는 말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이 레스 웨이스트¹¹⁾가 나왔는데 저희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요. 쓰레기를 정말 완전한 제로로 만드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든 저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자.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친구들 의견을 모았을 때 대부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팀원 중 한 분이 쓰레기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산물인 것이고 산업사회가 지속되는 한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실 아무리 쓰레기 제로를 하려고 마트 장을 볼 때 양파망 들고 가고, 백 들고 가고 해도 이미 모든 포장되어 있어 버리는. 저희의 선택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기업에서 먼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명품 가방 하울 영상을 보면서 오픈하는걸 봤는데, 포장 안에 또 포장, 포장 안에 포장. 명품 가방 하나를 감싸려고 백 안에 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존중하고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과 맞닿아 있으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제로웨이스트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에 공감하고 저는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을 할 때 살짝 찡찡해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나와서 항상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해시태그, 제로웨이스트 옆에다가 레스 웨이스트 해시태그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기업에서는 상품 자체가 브랜딩인 거잖아요. 기업들도 팔 때 우리가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싶고, 마케팅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라벨링이나 비닐 포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마케팅의 일종인데 네덜란드 네이처앤 모어라는 기업에서는 고구마나 바나나에다가 레이저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껍데기는 까서 먹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제로웨이스트가 되는 형태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한국에 도입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샘플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최우순// 제로는 힘들다. 일단 레스라도 실천하면 좋을 듯합니다. 제로는 너무 거창합니다. 다른 분 의견 들어볼게요.

박이슬// 저도 쓰레기 제로가 되려면 인간이 없어야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체가 쓰레기잖아요. 본인 스스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계속 뽐어내는데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아까 모아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원칙, 제대로 지구에서 사는 동안 쓰레기 제로가 될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후변화, 기후 위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약간은 찡찡할 때 많거든요. 텀블러 가끔 까먹고 오면 어떻게 해요, 컵 쓰고 갔다가 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를 만들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잣대를 들이대죠. 아니, 너 그런 운동 한다면 왜 옷 사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약간 이런 원칙 같은 틀에서 힘든 거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의 원칙이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 제로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향해서 지향하고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런 원칙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면 주변에 계속 전파하고 같이하자고 생각합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변 사람들과 같이하면 언젠가는 쓰레기 제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제로웨이스트라든지 그런 운동 같은 게 유행처럼 뭔가 이걸 하면 난 깨어있는 사람이고 삶은 그렇지 않은데, 블로거나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올릴 때 난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유행을 뭔가 삶 속에 들어오게끔 진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유행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할 것들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 시민운동

11) 레스 웨이스트 : less waste.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을 말한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인 레스 웨이스트의 실천 방법.

으로서 기업들이 변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서로 같이 양방향에서 진행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우순// 소비자의 실천과 행동이 같이 가면서 문화들을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에너지센터에서 땀땀 없이 일주일 살기라고, 센터가 있기 전부터 쪽 해왔어요. 이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로웨이스트라는 것이 어떤 있어 보이는 활동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참가자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시작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유행이 되어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반가운 것도 있지만 이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릴 그런 활동이 되려나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유지은// 저에게 제로웨이스트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죽어야 완전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눈뜨고 잠자는 순간에도 인간은 왜 이렇까 몰입되어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가 인간 중심으로 편하게 너무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불편함을 슈퍼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구매함과 동시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컵 없을 때는 커피 안 마시는 거, 조금 빨리 나와서 버스 타고 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이런 거를 기꺼이 선택하는 거라고 두 번째로 생각해요. 세 번째는 사회구조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이런 실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는 원래 종량제 봉투도 없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원래 검은 봉지에다 아무렇게나 버렸었는데, 쓰레기봉투 사라지고 바뀌고, 또 분리 배출하라고 바뀌고 한 것처럼 그런 강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요.

김지영// 저도 제로웨이스트가 우선 개인이 먼저 일상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최대한 안 나오게 하고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상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직히 쉽게 잘 안 돼요, 재사용과 일일이 재활용에 시간을 뺏다 보면 몸이 지치니까요. 솔직히 저는 종이와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처럼 세세한 분리수거가 너무 힘들 때는 가끔 일반 쓰레기로 버릴 때가 있고요. 쓰레기가 제로는 아니어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현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문화소외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산 친구들과 활동했는데 아이들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하루 한 봉지 과자도 못 먹어요. 슈퍼에 같이 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고르고요. 한 시간 내내 걸리더라고요.

관광지다 보니까 애들이랑 지역을 돌아다닐 때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신이 먹은 후 나온 쓰레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한 번씩은 줍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보고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나가요. 매번 버려지는 쓰레기를 매일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소비자 구매하는 지역 상품을 만드는데 판매가 된 후에 시간이 지나 지역에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쓰레기가 해결되지 않고 쓰레기가 계속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를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는 군지역인 저희 동네는 생각보다 밭과 논이 많이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매립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낚시꾼과 캠핑 온 사람도 생겼어요. 놀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출하고 아무 곳이나 버린 쓰레기는 저수지에도 많이 떠다녀요. 주민분들은 다 고령이셔서 치우기도 어렵고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든다면 제로를 만들 순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50년은 더 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50년 안에 분해되서 다 썩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최우순// 너무 편리하게 살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풍요로움으로 인한 기후 위기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회용품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일회용품이 너무 당연하게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돼버린 것이 불편함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삶의 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게 끔하고 실제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덜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

니까 쓰레기 배출을 제로화까지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는 현재 단계보다 더 줄이거나 재사용을 높이거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쓰레기 제로를 만들려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원칙을 우리끼리 한 번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정책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지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포스트잇에 써볼까요?

다섯가지 R은 많이 보셨죠? 거절하기(Refuse),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썩히기(Rot) 흔히들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원칙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사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재사용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재사용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요구르트 통 같은 거 씻어서 그냥 연필 같은 걸 다시 꽂아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쓰거나, 아무튼 발생한 물건들을 최대한 오래 한 번 더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라도 뭔가를 써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사용 콘테스트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재사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모으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계기를 줄 수 있을듯합니다.

박이슬// 생각보다 지퍼백이 튼튼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써도 찢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지퍼백 최고예요. 지금도 가방에 있거든요. 오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썼던 콜라병인데,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담아서 주려고 가지고 다니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튼튼해서 일반 생수병 같은 건 금방 찢그러지는데 이걸 플라스틱이라 매일 들고 다니고요.

최우순// 고양이 응가 버리는 비닐도 재활용 제품들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박이슬// 사실은 모아 대표님이랑 용기내 캠페인 찍을 때도 그런 지퍼백 어차피 나온 거 버려야 되잖아요. 비닐봉지가 발명된 게 사람들이 오래 쓰게끔, 계속 쓰게끔 하려고 비닐봉지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나무를 많이 써서 말이죠. 그런데 비닐을 일회용처럼 쓰면서 슬퍼지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비닐봉지 '나 이렇게까지 써봤다' 이런 것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큼 더 써봤는가. 어디까지 써봤는가 하는

최우순//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은 일회용품 없이 살기라는 사업 할 때 후기 보니까 배변 봉투를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실제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산책하러 나가면 담아야 하는데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비닐봉지밖에 없는 거죠.

모 아// 처음에는 비닐봉지가 제일 편리하니까 사용하는데 한 1년, 2년 실행하다 보면 다른 용도를 찾으셔서 할 수 있어요.

박이슬// 쓰레기 제로 하기 위해서는 안 사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 안 사야 합니다. 마트 가면 제일 설렘 때 있죠. 묶음 제품으로 싸게 나올 때인 거 같아요. 사실 사면 안 먹고 버리거나 그러거든요.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말고 행주를 쓴다든지, 물티슈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일 거 같습니다.

최우순// 불편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거,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거랑 묶음 제품을 불필요한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이슬// 다회용 용기나 아니면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 아// 저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하되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어

떤 사람은 텀블러 들고 커피 받아 오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까먹는 분들도 계시죠.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고 지치는데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과정이 유연하게 에코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정이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유연하게 하되 정확하게 하고 느린 것 같지만 빠르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해봤고요. 저는 구제랑 빈티지 옷만 사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새 옷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야 하는 거죠.

최우순// 빈티지 옷이라는 것은 구제매장을 이용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모 아// 네, 오천 원, 삼천 원. 저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육류 소비 안 하고 채식을 한 번 도전해보지도 있어요. 육류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최우순// 자기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보는 거 좋은 거 같습니다. 구제와 빈티지는 재사용으로 구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새 옷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식 도전도 있고요.

모아름드리// 저도 우선은 덜 쓰고 안 사는 거입니다. 오래된 것들에 대한 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를 부추기는 매체 끊기입니다. 저는 쇼핑물, 인스타그램 팔로우 데 있으면 언팔하고, 애플리케이션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 인 거 같아요. 나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정신 승리이거든요.

최우순// 그 이야기는 문화적 측면일 것 같아요.



박이슬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김지영 (잇잇대표)

모아름드리// 또 인간이 자연의 일환임을 인지하고 자급자족하고 자연과 좀 가깝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썼어요.

도움이 되고 제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주위에 선언하고 알리는 거가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한 500권의 책을 택배로 발송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 뽁뽁이를 이야기하다가 제 눈치를 쓱 보시더니 뽁뽁이는 안 되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선언하고 알리는 데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유지은// 저도 제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봤는데요. 물건을 구매와 동시에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이른 시일 안에 물건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더라고요. 포장한 용지라든지, 그거 자체도 쓰고 나면 쓰레기가 되니까.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식료품을 사거나 할 때 소비 전에 꼭 필요한지 이유를

세 가지. 그니까 최대한 덜 살 수 있게 말이죠. 세 가지라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덜 살까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즉흥적인,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말자는 의지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인식변화이었는데요. 행사할 때 일회용 접시, 종이컵 놓으면 음식 대접하거나 뒤처리할 때 편하지만, 우리가 다회용 용기를 놓고 텀블러를 가져오라고 하면 결국은 설거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이 편리함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멋을 부리려면 옷도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액세서리 기준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기준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교육적으로든지 인식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사용을, 최소 10회 이상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다시 더 쓰는 거. 그리고 안 사는 거. 그리고 공유 물품을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주변에 그런 공유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명품포장 이야기를 듣고 포장 단계별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포장을 말하는 거죠. 단계별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같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정책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을 잘해요. 생활에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깜빡해서 텀블러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거든요. 재사용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사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이봉투는 종이봉투대로 유리나 플라스틱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수거하고 소독해서 커피 상점이나 마트에 비치되어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제가 커피를 사더라도 소독된 유리병이나, 컵에 가져와 우리 집 앞에 다시 분리수거하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벤트대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술 전공이어서 아이들 수업할 때 보면 미술대회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어디까지 재사용해봤냐 이런 대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생활에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우순//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은 나 자신도 쓰레기를 제로화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행동을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소비의 문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거나 사기전에 여러 번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장바구니 담아놓고 바로 결제하지 않고 3일이나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습관이나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쓰레기니까 물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재사용이 된다면 쓰레기로 가지 않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의 문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된 거 같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던 재사용을 해야 하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다음 많이 나왔던 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시도인 거 같아요. 자기만의 원칙 만들기.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드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소비를 부추기는 매체를 아예 끊어버리는 나만의 원칙이죠. 쓰레기를 덜 소비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향하고자 선언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선언하신 분과 그 주변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변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식변화가 필요할 건데요. 주로 나왔던 소비, 재사용, 그리고 원칙이나 문화를 만드는 이런 세 가지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재사용콘테스트도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느냐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박이슬// 저는 예를 들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생협이라는 곳들을 가면 거기다 과대포장, 플라스틱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를 본인들이 제공하겠다 해서 조합원들 모아서 활동하시는 곳에서 플라스틱에 담아 파는 그것과 비닐에 묶어서 리본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런 토론회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토마토도 플라스틱이 아닌, 그냥 담아놔도 문제없잖아요. 감자 담아놔도 문제없거든요. 쓰레기가 안 나오게 뭔가 마트들이랑 연계해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

네 마트들만 가도 마찬가지로 인데요. 농산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감자, 고구마, 과일류 같은 거는 올 때는 포장 안 돼서 오는데 마트에 오면 포장하잖아요. 스티로폼 깔고, 랩 씌우고, 가격표 붙이고 하는데 무 포장할 수 있는 마트들이랑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최우순// 그래서 불모지 장이 도시에서 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첫째 갔을 때 아쉬웠던 점은 먹거리를 가지고 오신 분 중에서 지역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계셨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찾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길거리 매대에 나무상자에 과일들이 담겨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사실 아름다운 거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 자주 가지 못할뿐더러 도시에서 그런 장을 크게 한번 열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했어요.

모 아//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함께하자고 연락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장이니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해주신 분들만으로도 감사했지만요. 이번 두 번째 불모지장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분이 전주분들이었어요. 완주, 고산 이런 쪽에서 농산물 판매하러 많이들 오셨거든요.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종합경기장 뒤 매장에서 곡물도 잘게 나눠서 팔아보는,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식당들에서 비건 음식 판매는 메뉴로 나오기 어려워요. 각자 가게들만의 사정이 있지만, 비건은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있는 메뉴에 하나씩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서 활동하는 것이 '비건탐색단'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1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식당에 가서서 비건 음식을 요청하면 그 식당에서 수락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한 달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어디선가 후원을 많이 해주면 불모지장도 그렇고 지속할 수 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기획자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속하기 힘들어요.

최우순// 비건 음식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제주도나 서울은 비건 음식 지도들도 나왔더라고요.

모 아// 전제도 있긴 있어요. 인식이 더 많아져야 식당들도 움직임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이 소비자가 찾거나 요구해야 하니 힘든 게 있죠.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최우순//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박이슬// 예전에 원주에서 반 공기 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식을 남기게 되는 이유는 제가 먹을 양보다 많거나 그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을 많이 못 먹을 지경이던 적 있잖아요. 반 공기 캠페인 어때요? 그 만큼에 용기를 만드는 것도 쓰레기를 만드는 거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반 공기 캠페인을 식당에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순// 원주는 반 공기용 밥그릇을 만들었더라고요. 참여하는 식당에 나눠주고요.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모아름드리// 저희 쪽에서 마트 찾아가서 했었어요. 마트 측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위생이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라고요. 만약에 먹고 손님이 탈 나면 책임 소재가 마트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백 명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큰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트들도요.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조례로 포장을 규정이 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때문에 팀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봤을 때 보면, 택배를 보낼 때 뽁뽁이를 사용한다든지 요즘에는 종이 포장재가 있어서 별집처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도 종이를 새로 생산

해서 써야 하나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폐의류나 헌 의류를 못 쓰는 거를 버리기 전에 그거로 감싸서 택배를 부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모 아// 대단하시네요. 마트에 가서서 하는 행동력이요.

박이슬// 위생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과일 사면 씻어서 먹지 않아요?

모아름드리// 코로나랑 맞닿아 있으면서 인식이 그런 거 같아요. 일회용을 줘야 감염 예방이 적더라고요. 실제로 실험했을 때 일회용 컵에 주는 것보다 다회용기를 씻어서 주는 게 세균수가 오히려 더 적었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또 일회용을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이슬// 일회용이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을 기업에서 만든 거겠죠. 종이컵 생각해 보면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 그대로 비닐에 포장에서 주거든요.

유지은// 작년에 일회용 권장을 환경부가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라고요.

최우순// 제가 대학생 친구들과하고 서포터즈를 하는데, 처음 모였을 때 즐거웠던 일이 뭐였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일회용품 뭐냐고 그랬더니 전북대 다니는 학생이 비닐장갑이래요. 비닐장갑을 대체 어디서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 학생 식당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밥을 떠야 하고, 밥을 먹고 나가기 전에 버린대요. 진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대학생이 일회용 장갑을 쓸까 했는데 학생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아름드리// 저도 비닐 장갑하니까 생각난 건데, 지난 투표 때 모든 곳에서 장갑을 사용해야만 하더라고요.

유지은// 자기 장갑 가지고 가면 된다고, 안된다고 한 곳도 있어요.

최우순// 처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계속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화장품어택처럼 소비인식어택을 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을 정말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수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쓰레기를 줄이는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사실 어릴 때부터 들으면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듣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모 아//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도 좀 넓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우순// 제가 최근에 겪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마시는 요구르트가 지난주에 유통기한이 4월 4일까지였던 거예요.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넣어 노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꽤 짙은 것 같더라고요. 상한 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었지요. 개봉하지 않은 물품들은 유통기한이 길다고 얘기만 들었으니 실제 기한 지난 걸 먹기가 그랬는데 내가 겪으니까 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사용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재사용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재사용콘테스트 이런 얘기 해도 주셨는데요.

박이슬// 결국에는 인식 아닌가 싶어요. 다시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알려주는 행사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모아름드리// 진짜 오래된 나의 10년 애착 옷이 있는데요. 이렇게 10~20대에게 구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라는 건 사실 위에서 법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을 바꾸려면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먼저 나서고 연예인들이 해야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유지은// 그건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거슬러 가지 않아요? 멋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최우순// 그것은 우리에게 주입된 거예요.



유지은// 일상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한 일인 거 같아요. 정규교육 과정에서 시험 나오게끔 해야 변화가 될 거 같거든요. 수능에 나오게 해야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순// 저는 재활용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았고, 요즘에는 제로웨이스트 등 포장재를 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재사용 문화도 매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함께 해보면 문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박이슬// 위생개념을 일단 깰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지은// 여기 센터에서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병뚜껑 보내면 치약짜개 주는, 메일로 왔을 때 저도 솔깃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플라스틱 병뚜껑은 일상 생활에 많고, 그것을 내가 보내면 재활용되는 이벤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 같아요

모 아// 저는 한시적으로 플라스틱병뚜껑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된다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 참새방앗간이라고 치약짜개를 모으는 사람(작아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모으는 사람)을 참새라고 하는데 제가 참여했거든요. 참새가 돼서, 그런데 저는 병뚜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확산시키는 걸 잘하니가 가게에게 모아 달라고 했어요. 프리데코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병뚜껑에 대한 인식이 덕분에 좋아

지고, 여기도 한다고 하고, 저번에 아름드리님도 GS와 하는 거 보내주셨더라고요.

모 아// 사람들이 저한테 병뚜껑 언제 또 가져가시냐고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은// 폐우산도 우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쳐서 쓰고 싶어도 고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모아름드리// 기획을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우산 어떻게 버렸었지? 생각했어요. 거의 엄마가 알아서 버려 주셔서 몰랐던 거 같아요. 시청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시마다 구마다 또 다르고. 정확한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힘들었죠. 하루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종량제에다 대충 버리세요.” 라고요. 원칙은 우산을 뜯어서 끝 쪽지에 플라스틱 잘라서, 실밥 떼고, 손잡이도 분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품이 많이 가는 거더라고요.

유지은// 우산을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고치는 데가 없는 건가요?

모아름드리// 서울에 찾아보면 있어요. 사실 전주에서는 아직 못 찾았어요.

박이슬//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폐우산은 어디로 가나 몰랐잖아요. 어떻게 버리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알리면 좋을 듯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갔느냐는,

유지은// 폐우산은 어디로 갈까? 동화책처럼 말이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박이슬// 진짜 그 많은 우산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리사이클¹²⁾, 업사이클¹³⁾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구상해보고, 재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우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아이디어가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에너지는 에너지 파트가 있고, 숲은 숲에 관련된 기관에서만 했는데요. 기후 위기라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뭔가를 해나가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다 보면 인식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런 협업의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소비와 재사용으로 귀결이 됐고, 우리만의 문화를 다시 제로웨이스트 문화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들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한 번씩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박이슬//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건. 우리가 사는 물건, 버리는 쓰레기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 생기는 괴로움인 거 같아요. 어쨌든 물건이 만들어져서 버려지는 데까지 올바르게 폐기될 수 있게끔 재사용을 하든, 기업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그 사람들이 끝나는게 아니라 끝까지 재활용될 수 있거나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히고 어렵고 누군가 같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아무래도 같이 만났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12) 리사이클 : 버리는 물품을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는 일.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13) 업사이클 : 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등 다양한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recycle)'을 합친 단어로, 더 의미있고 멋있게 재활용 하는 것을 뜻함.

든지 편하게 연락도 주시고 연락도 하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아// 저도 동의하고 저는 항상 피드백이 빨랐거든요. 불모지장에 오신 분들이나 모악산의 아침 오시는 분들이나 캠페인에 참가하시는 분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상에 변화가 됐어요. 네트워크는 많은데 다들 뵈고 싶었던 분들 알게 되니까 얼굴 텃으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사회 공헌하는 부분도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유지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저보다 어린 활동가님들이 생각났어요. 아침에 국장님 저 가방 있어야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원래 디자인 자체가 때가 묻어있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프라이탁¹⁴⁾이라는. 분명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 재활용이라면 이렇게 쓰는 것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더 구체적으로 청년분들이 많이 있고 더 일상생활에서 고가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지영// 저는 지역 상품을 만들 때 어떡해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정리하게 됐어요. 가장 좋았던 건 다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작 단계에서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세운 기준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흔들리면 어떡할까? 흔들려도 괜찮은데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이 외로워지는 거 같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혼자 견디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도 하고 알게 돼서 조금 힘이 생길 거 같고, 도움도 청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고, 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 같아요.

모아름드리// 발제 주제를 받았을 때 팀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주제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물론 개인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프리데코에서는 그 말을 꼭 팀원들이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들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중요하다고요. 20%의 누군가가 80%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들의 노력만 사실 강조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프리데코 입

14) 프라이탁 "세계적인 업사이클링 브랜드, 현재 프라이탁은 트럭 방수천을 이용한 가방, 지갑, 힙백을 넘어서 조금 더 완전한 자순환 프로젝트인 F-ABRIC를 실행중에 있다. 100퍼센트 생물 분해가 가능한 헴프 및 플렉스플 소재로 한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라이탁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인 원단 제작에 들어가는 물의 양 또한 줄일 수 있다.

장이고 저도 환경 부분 관심이 있고 실천하는 분들이랑 늘 곁에 있다 보니까 환경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어요. 다들 관심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분리배출 보면 엉망이고요. 생각보다 나에 라운드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꿈을 깨고 현실을 다시 직시하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연대를 하고, 노력하고, 같이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최우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인사했을 때 즐거웠던 일이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소비자 실천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아름드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은 실천으로 가야하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정부에 정책에서 행동들이 바뀔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시민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게 앞으로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제문 첨부>

전주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발제_ 최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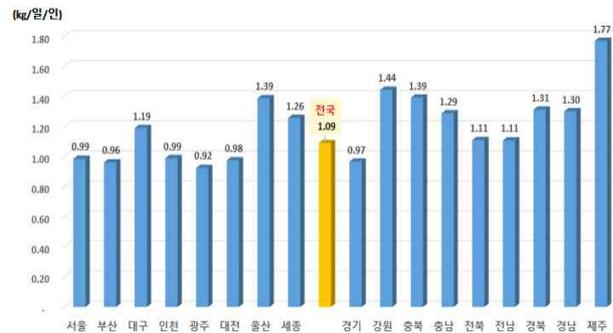
1) 공유하기

●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출처 : 환경부, 2020년)

- 201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9kg/일/인으로 '18년도(1.06kg/일/인) 대비 2.8% 증가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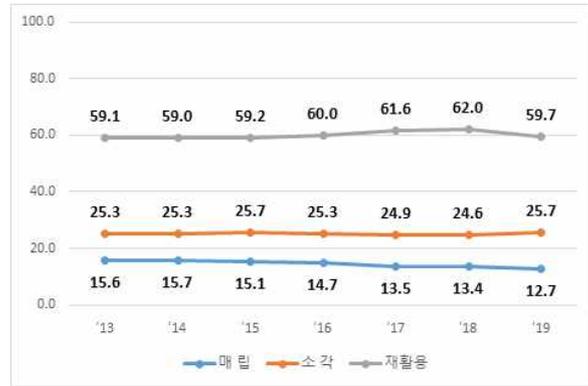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 2019년도 전체 생활계폐기물(57,961톤/일) 중 종량제 방식의 배출비율이 50.9% (29,508톤/일)이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은 24.4%(14,140톤/일), 음식물류 폐기물은 24.7%(14,314톤/일) 각각 차지
- 2019년도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율은 59.7%, 기타 1.9%로 전년(62.0%) 대비 0.4%p 감소, 소각률은 25.7%로 전년(24.6%) 대비 1.1%p 증가, 매립률은 12.7%로 전년(13.4%) 대비 0.7%p 감소하여 '14년 이후 감소추세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톤/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 현황(%)

●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의미
 -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자원순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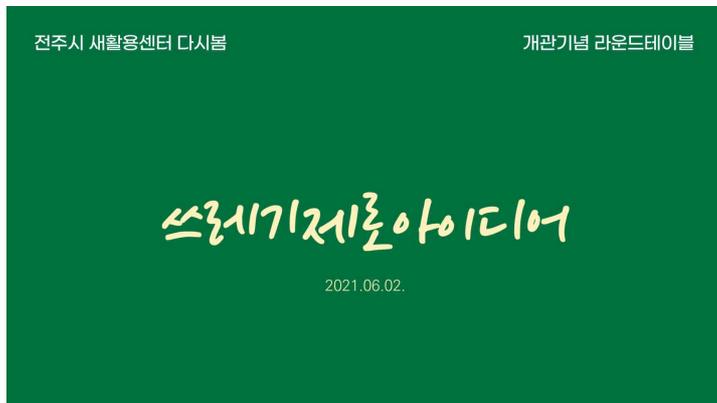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2) 이야기 나누기

- 내가 또는 누군가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 괜찮아 재활용이야?!
- 쓰레기 제로의 의미

- 쓰레기 제로의 원칙
- 쓰레기 제로, what & how ?
 - 집에서
 - 일터에서
 - 인식 확대하기, 실천 확장하기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라운드테이블의 이야기 나누기는
평범한 시민이 발생시키는 생활 속 쓰레기를 주제로 합니다.



-1-

이야기 나누기



-2-

이야기 나누기

- 내가 또는 누군가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 관찮아 재활용이야?!
- 쓰레기 제로의 의미
- 쓰레기 제로의 원칙
- 쓰레기 제로, what & how ?
 - 집에서
 - 일터에서
 - 인식 확대하기, 실천 확장하기

-3-

**내가 또는 누군가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4-

-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
- 대형쓰레기
- 유해쓰레기

관찮아 재활용이야?!

-5-

일일 생활쓰레기양 약 6만톤
 재활용율 59.7%, 매립 12.7%, 소각 25.7%

재활용? 매립? 소각?

-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소비자 책임을 넘어 생산단계부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한 제도
- 제품에 재활용비용을 포함시켰다는 의미
- 2003년부터 도입,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이 제도가 적용된 제품

재활용 용이성 등급



-9-

쓰레기 제로의 의미

-11-

-6-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 시설명 | 위치 | 운영기간 | 면적 | 용량 | 비고 |
|----------------|------------------|-------------------------------|--|---------------------|---------------|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 | '16.11.1~ 2035.10.30 | 연면적 8,272 m ² 건 물 4,567 m ² | 300톤/일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
| 재활용선별시설 | | | 연면적 2,884 m ² 건 물 2,481 m ² | 60톤/일 | |
|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 이서면 선비로 1363-92 | '06.7.10~'43.11.30 ('06.2.24) | 86,766 m ² | 990천 m ³ | |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완산구 정여립로 625 | '06.9.30~'26.9.29 ('07.3.30) | 98,951 m ² | 400톤/일 | |

-8-

일회용 포장재 강제 보증금 제도

- 물건 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빈용기를 가져오면 돌려주는 제도
- 일회용 페트병, 유리병, 캔 각각 0.25유로(약300원)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붙여 판매(독일 등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장점? 단점? 우리나라는?

-10-

계획된 진부화
 과대포장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힘?

-12-

쓰레기 제로를 위한 원칙

-13-

5R ?

- 거절하기(Refuse)
- 줄이기(Reduce)
- 재사용하기(Reuse)
- 재활용하기(Recycle)
- 썩히기(Rot)

-14-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라운드테이블 현장 PPT 자료: 최우순